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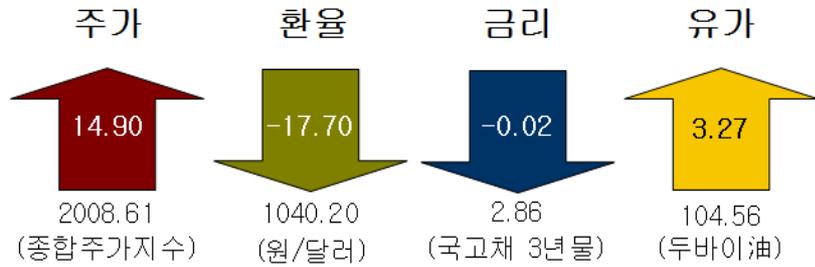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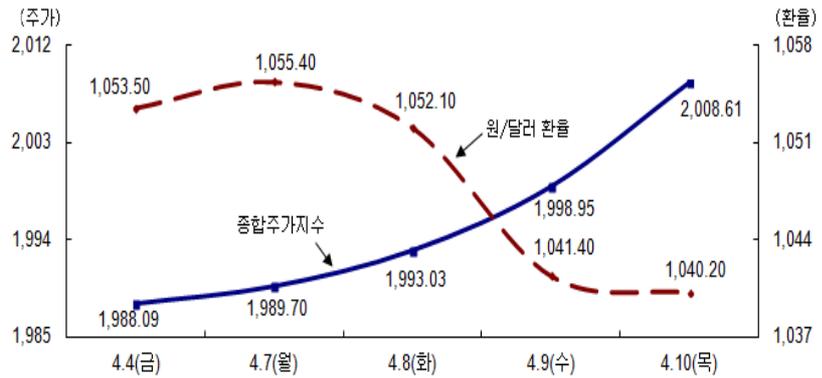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취업애로계층의 특징과 시사점
- 대졸, 청년, 장기 취업애로계층에 주목해야

週間 主要 經濟 指標 (4.4~4.10)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	1
□ 취업애로계층의 특징과 시사점		
- 대졸, 청년, 장기 취업애로계층에 주목해야	.....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11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 경제연구본부       :   김 민 정  연구 위 원 (2072-6212, kimmj@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취업애로계층의 특징과 시사점

- 대졸, 청년, 장기 취업애로계층에 주목해야

#### (취업애로계층 정의)

취업애로계층은 실업자, 주 36시간미만 근로자로서 추가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지표로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포괄해 체감 고용상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금융위기 이후 고용여건 악화로 취업애로계층이 급증했는데, 최근 경기회복과 함께 취업애로계층이 감소하여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취업애로계층이 2010년 사상최대치인 192만 명을 기록했으나, 2013년 158만 명으로 감소하며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냈다.

#### (취업애로계층의 특징)

취업애로계층의 특징을 크게 일곱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취업애로계층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 취업애로계층 중 불완전 취업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증가세를 나타내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둘째, 취업애로계층 중 청년층의 규모가 가장 크고, 고령층 취업애로계층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의 규모는 2013년 기준 45만 3천 명으로 전체 취업애로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7%로 가장 높다. 고령층 취업애로계층은 금융위기 직후 급증했다가 최근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 위기 이전 수준보다 높다. **셋째, 대졸이상 취업애로계층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3년 대졸 이상 취업애로계층은 57만 7천 명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했다. 반면, 대졸을 제외한 다른 학력의 취업애로계층은 하락했다. **넷째, 남성 취업애로계층이 여성보다 규모가 크고, 개선세도 여성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성 취업애로계층의 감소율이 남성보다 더 크게 나타나 여성 고용시장 개선이 남성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취업애로계층 중 장기 미취업자가 금융위기 직후 빠르게 증가했고 취업 無경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장기 미취업자는 2013년 39만 1천명으로 금융위기 직후 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섯째, 취업애로계층 중 상용근로자의 규모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취업애로계층에 속하는 상용근로자 중 실업자는 2013년 기준 20만 명,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만 4천 명을 기록하며 금융위기 이전보다 급증했다. **일곱째, 취업애로계층이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이며, 이어서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설,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 취업애로계층이 많이 나타났다.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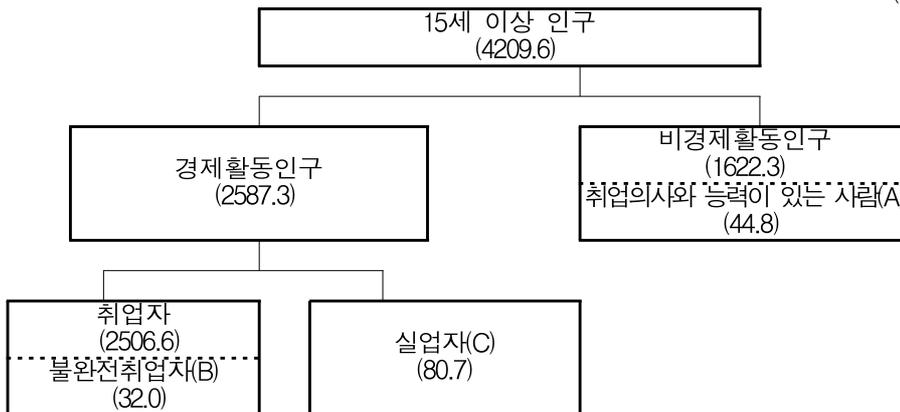
고용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취업애로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청년층과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대졸 취업애로계층의 해소를 위해 대학 교육의 수요자 맞춤형 혁신, 대학 진학률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완화를 위해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장기미취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영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 1. 취업애로계층 연구 목적과 정의

- (연구 목적) 실업자 뿐 만 아니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포괄하는 취업애로계층의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이 보고서에는 지난 10년간(2004년~2013년)의 취업애로계층을 추정하고 특성을 분석하여 고용시장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취업애로계층을 학력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고용률 제고 등 고용시장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취업애로계층 정의 및 구성) 실업자, 불완전 취업자,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함
  - 기획재정부의 정의에 따르면 실업자<sup>1)</sup>,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로서 추가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포괄함<sup>2)</sup>
    - 불완전 취업자는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및 조업 중단 등으로 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 중 추가적으로 일의 시간을 늘리거나, 현재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거나, 더 많이 일 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은 사람을 포함
    -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직장을 원하고 직장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함

### < 취업애로계층 구성 >

(단위 : 만 명)



\* 취업애로계층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A) + 불완전취업자(B) + 실업자(C)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201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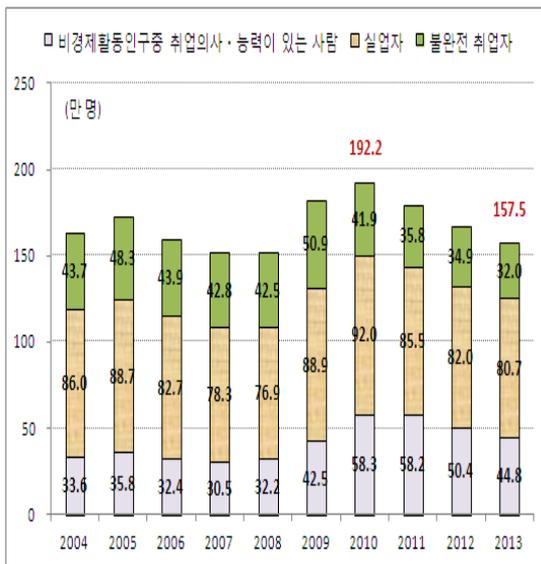
1)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주간에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나타냄.

2) 2010년 1월 21일 기획재정부의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실업자(89만명),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42만명), 취업자중 추가취업희망자 (51만명) 등 고용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취업애로계층은 2009년 182만 명으로 추정함.

## 2. 취업애로계층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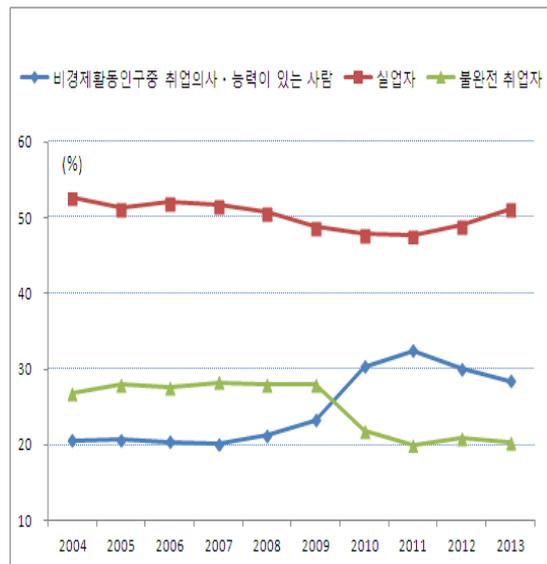
- 취업애로계층은 2010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 추세
  - 취업애로계층의 구성을 살펴보면, 실업자,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불완전 취업자 순으로 규모가 크게 나타남
    - 취업애로계층이 2010년에 사상최대치인 192만 명 기록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 158만 명으로 감소<sup>3)</sup>
    - 2013년 기준 취업애로계층 중 불완전 취업자는 32만 명, 실업자는 80만 7천 명,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44만 8천명을 나타냄
  - 취업애로계층 중 불완전 취업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증가세를 나타냄
    -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13년 28%로 금융위기 전 2007년 20%보다 증가함

< 취업애로계층 규모 추이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함.  
 주 : 불완전 취업자 = 주 36시간미만 근로자로서 추가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

< 취업애로계층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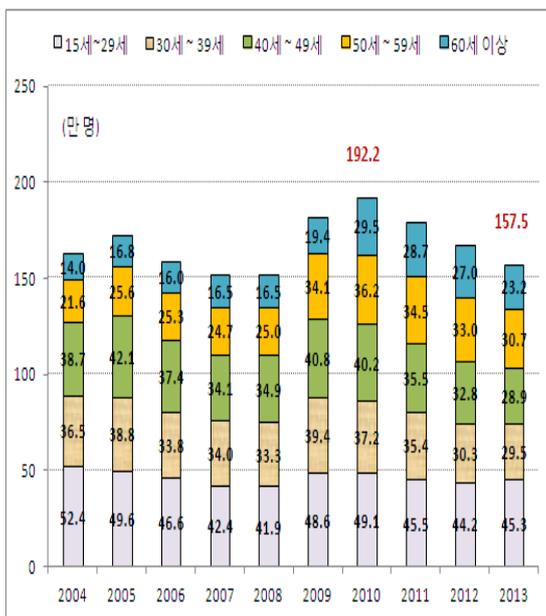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함.  
 주 : 불완전 취업자 = 주 36시간미만 근로자로서 추가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

3) 2013년 취업자는 2,506만 6천명으로 전년 대비 38만 6천 명 신규 취업자가 증가하여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3.1%를 기록하며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 취업애로계층 중 청년층의 규모가 가장 크고, 고령층 취업애로계층은 증가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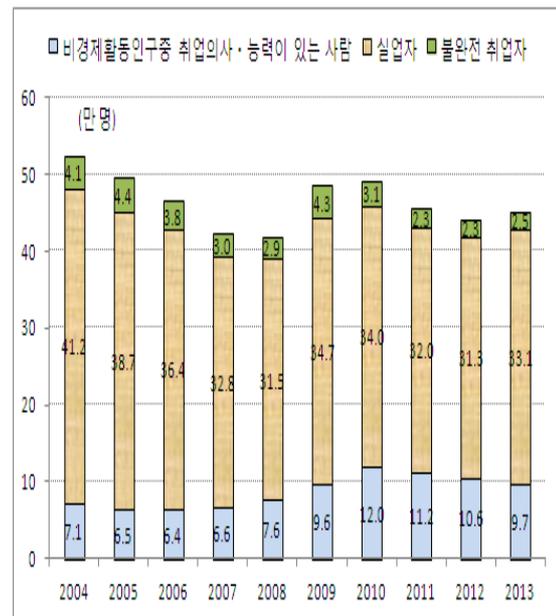
- 취업애로계층 중 청년층이 가장 규모가 크고 고령층 취업애로계층이 최근 회복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보다 높은 수준임
  - 청년층 취업애로계층 규모는 2013년 기준 45만 3천 명으로 전체 취업애로 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7%로 가장 크게 나타남
  - 50대와 60대 이상 취업애로계층은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다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 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임
- 청년 취업애로계층을 유형별로 보면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는 감소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증가세
  - 청년 취업애로계층 가운데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기준 9만 7천명으로서,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보다 높은 수준임

< 취업애로계층의 연령별 추이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함.

< 청년 취업애로계층의 유형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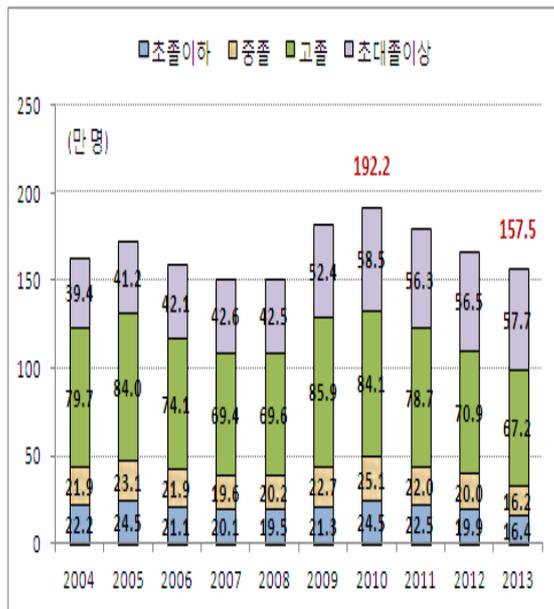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15~29세 청년층만 포함.

○ 대졸4) 이상의 고학력 취업애로계층이 금융위기 직후 급증한 후 최근 감소했으나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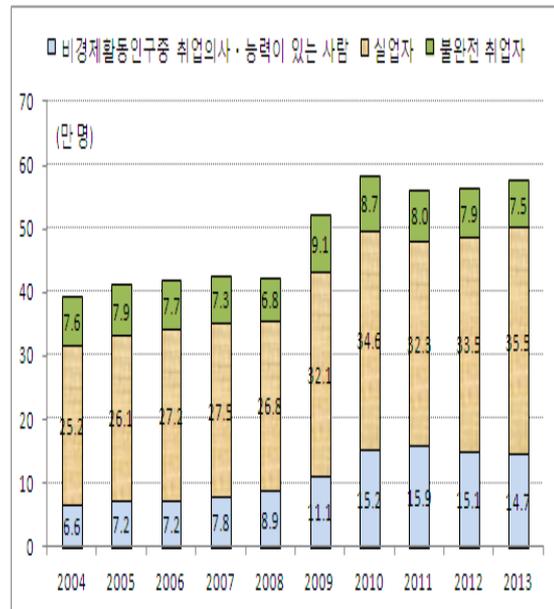
- 고졸 학력자의 취업애로계층 규모가 가장 크지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는 반면, 초대졸 이상의 취업애로계층이 증가세를 나타냄5)
  - 취업애로계층 중 초대졸 이상은 2013년 기준 57만 7천 명을 기록해 금융위기 이전 수준 40만 명 내외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
- 초대졸 이상 취업애로계층 중 실업자의 비중이 가장 크고 증가 추세에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도 증가세임
  - 초대졸 이상 취업애로계층 중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2013년 기준 14만 7천 명으로 금융위기 이전 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치이고, 실업자는 35만 5천 명으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취업애로계층의 학력별 추이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함.

< 고학력 취업애로계층의 유형별 추이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초대졸이상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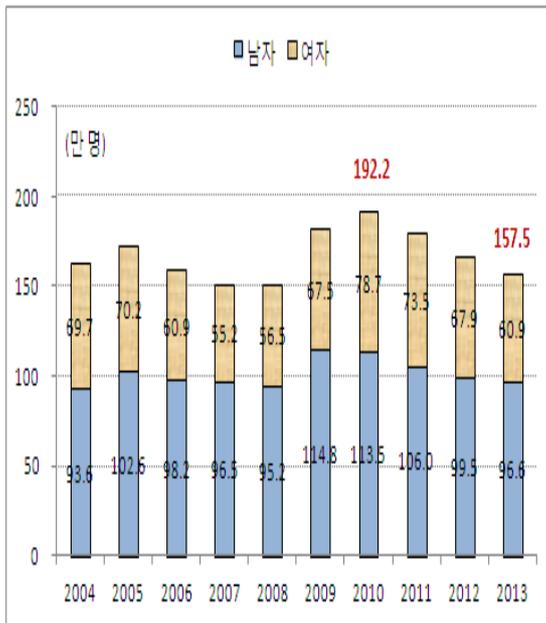
4) 2-3년제 전문대를 포함하는 초대졸이상을 의미함.

5) 통계청에 따르면, 고졸의 실업률은 2012년 3.6%에서 2013년 3.4%로 감소한 반면 대졸 이상은 동기간 3.2%에서 3.3%로 증감함.

○ 남성 취업애로계층이 여성보다 규모도 크고, 개선세도 부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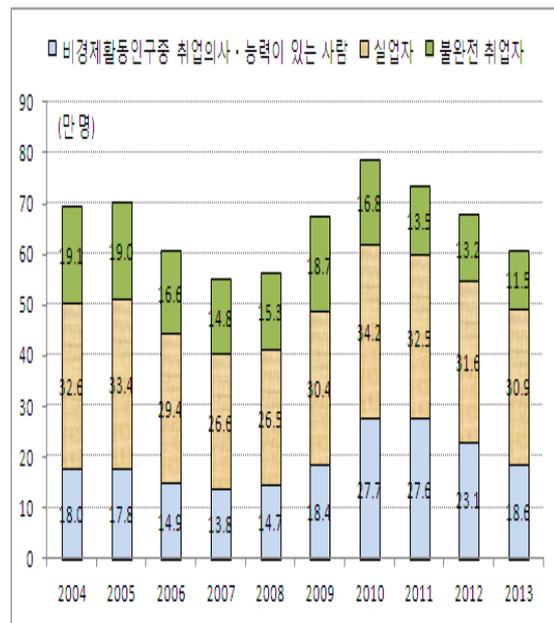
- 남성 취업애로계층 규모가 여성보다 크게 나타나고, 금융위기 이후 개선세가 미흡함
  - 2013년 남성과 여성 취업애로계층은 각각 96만 6천 명, 60만 9천 명으로 전체 취업애로계층에서 남성과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1.3%, 38.7%를 나타냄
  - 금융위기로 인해 여성의 취업애로계층이 남성보다 더 크게 증가하며 여성의 고용시장이 더 악화되었으나 2011년 이후 여성 취업애로계층의 감소율이 남성보다 더 크게 나타나, 여성 고용시장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함
- 여성 취업애로계층 가운데 불완전 취업자가 크게 감소세를 나타냄
  - 여성 취업애로계층 중 불완전 취업자는 2013년 기준 11만 5천 명으로 200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취업애로계층의 성별 추이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함.

< 여성 취업애로계층의 유형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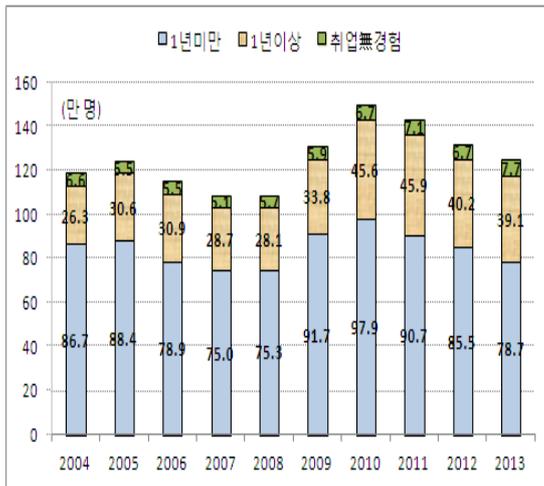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함.

6)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0.3%p 증가해 50.2%를 나타낸 반면, 남성은 동기간 0.1%p 하락해 73.2%를 나타냄. 실업률은 남성은 2012년 3.4%에서 2013년 3.3%로 감소한 반면 여자는 동기간 3.0%에서 2.9%로 더 크게 감소함.

○ 취업애로계층 중 전직장을 그만 둔지 1년 이상된 장기 미취업자가 금융위기 직후 빠르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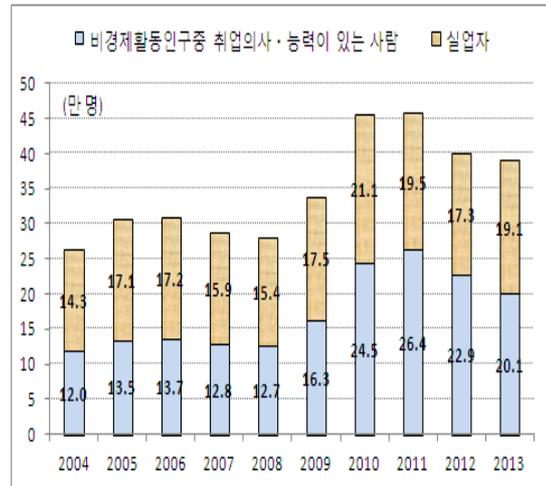
- 전직장을 그만 둔지 1년 이상된 장기 미취업자와 취업 無경험자가 급증함
  - 장기 미취업자는 2013년 39만 1천 명으로 금융위기 직후 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임
  - 취업 無경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7만 7천 명으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전직장을 그만 둔지 1년 이상된 장기 미취업 취업애로계층의 유형별 구성 추이를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며 실업자보다 많아짐
  - 2013년 기준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취업애로계층 중 실업자는 19만 1천 명, 취업의사와 능력이 비경제활동인구는 20만 1천 명을 기록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장기 미취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애로계층(B)의 취업활동별 추이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함.  
 주 : 취업애로계층 중 실업자와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만 포함 (불완전 취업자는 불포함).

< 장기 미취업자의 유형별 추이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함.  
 주 : 취업애로계층 중 실업자와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전직장을 그만 둔지 1년 이상 된 장기 미취업자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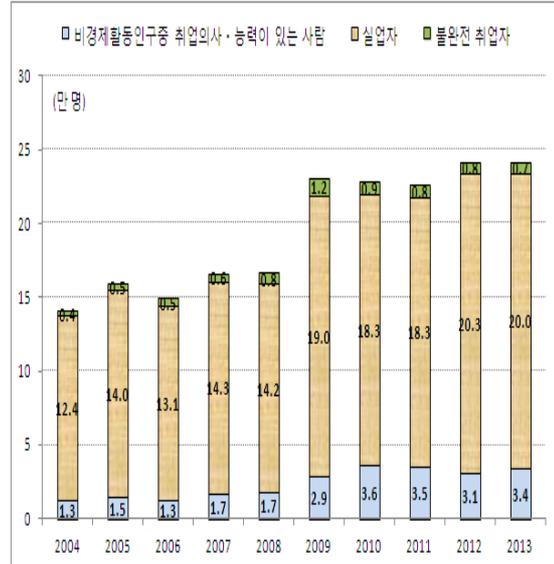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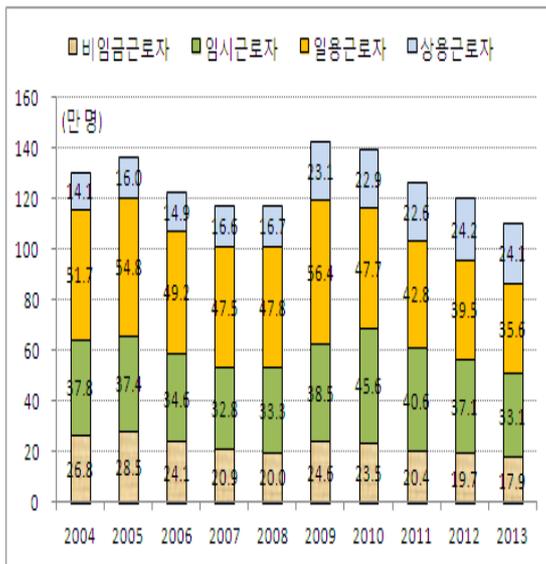
7) 보고서에서 취업애로계층(A)가 분석대상이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조사에서 조사 항목이 취업 여부 및 장단기 실업 여부에 따라 조사 문항이 달라짐에 따라서 취업활동별에서는 취업애로계층(B)를 분석하고, 종사자지위별과 산업별에서는 취업애로계층(C)를 분석함

구분		취업애로계층(A)	취업애로계층(B)	취업애로계층(C)
실업자	단기 (1년 미만)	○	○	○
	장기 (1년 이상)	○	○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단기 (1년 미만)	○	○	○
	장기 (1년 이상)	○	○	
불완전취업자		○		○

○ 취업애로계층 중 상용근로자의 규모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취업애로계층의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sup>8)</sup>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일용과 임시근로자는 감소세를 지속
  - 취업애로계층의 상용근로자는 2013년 기준 24만 1천 명을 나타내며 증가세를 나타내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
  - 반면에 금융위기 직후 급증했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최근 크게 감소함
- 상용직 취업애로계층의 유형별 추이를 살펴보니, 실업자와 취업 의사 및 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세를 나타냄
  - 2013년 기준 상용직 취업애로계층 중 실업자는 20만 명,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3만 4천 명을 기록하며 금융위기 이전보다 급증

< 취업애로계층(C)<sup>9)</sup>의 종사자 지위별 추이 >      < 상용직 취업애로계층의 유형별 추이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함  
 주: 1) 취업애로계층 중 전직장을 그만 둔지 1년 미만 된 단기 미취업자와 불완전취업자만 포함.  
 2) 임시, 일용, 상용근로자는 임금근로자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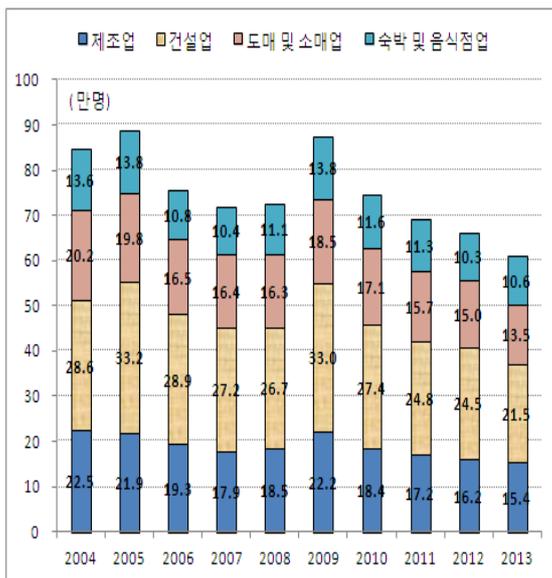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함  
 주: 취업애로계층 중 전직장을 그만 둔지 1년 미만 된 단기 미취업자와 불완전취업자만 포함.

8)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와 고용계약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을 의미함.  
 9) 분석대상에 대해서는 각주 7 참고.

○ 취업애로계층이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이며, 이어서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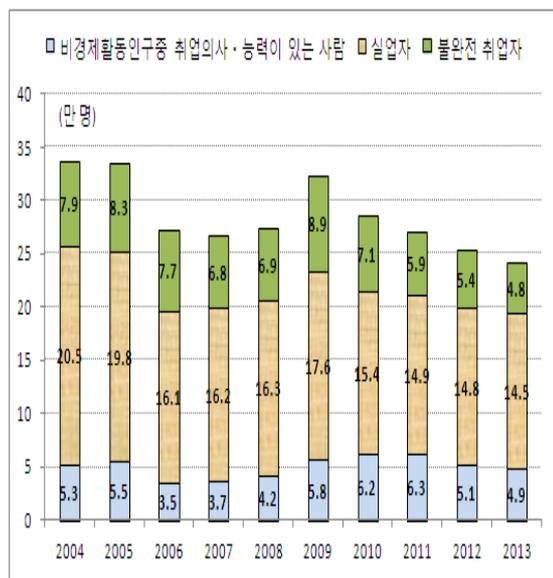
- 취업애로계층이 가장 많은 상위 4개의 업종은 건설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이며, 상대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설, 도매, 음식 숙박업에 많음
  - 건설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의 취업애로계층은 금융위기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013년 기준 음식 숙박업만 전년대비 3.5% 증가함
- 자영업 중심의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포함된 취업애로계층 중 실업자와 불안전 취업자는 크게 감소함
  - 2013년 기준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포함된 취업애로계층 중 실업자와 불안전 취업자는 크게 감소해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 취업애로계층(C)<sup>10</sup>의 산업별 추이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함.  
 주 : 1) 산업 9차 계정을 적용하여 분류하였으며 총 21개의 산업으로 나뉘지만 취업애로계층의 비중이 높은 상위 4개 산업만 선정함.  
 2) 취업애로계층 중 불안전취업자와 전직장을 그만 둔지 1년 미만 된 단기미취업자를 포함

< 자영업 취업애로계층의 유형별 추이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함.  
 주 : 1) 자영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만을 포함.  
 2) 불안전취업자와 전직장을 그만 둔지 1년 미만 된 단기미취업자 중 자영업 종사자만 포함

10) 분석대상에 대해서는 각주 7 참고

### 3. 시사점

- 취업애로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방안이 필요하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
  - 청년층과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강화
    -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양성 프로그램 및 중소기업 인턴제 적극 활용하고 고령층 인력이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재취업 프로그램 강화
    - 상담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직장체험 및 직업훈련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청년 취업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
    - 고령층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고령층 인력의 노하우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취업 프로그램을 활성화
  - 대졸 취업애로계층의 해소를 위해 대학 교육의 수요자 맞춤형 혁신, 대학 진학률 조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 대학에서 기초 교육 뿐 아니라 기업의 요구 사항도 반영하는 현장 실무형 교육도 실시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고용지원센터와 대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일자리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중소·벤처기업에서 근무하는 고학력 연구 인력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완화를 위해 공공보육시설을 확대
    - 여성이 출산 후 경력단절 현상 완화와 직장 복귀 지원을 위해 공공보육시설 확대하여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여성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 주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여성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장기미취업자를 위한 취업훈련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
    - 장기미취업자의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취업프로그램 강화

-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인턴 및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활성화로 인해 취업무경험 미취업자를 취업유경험자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발판 마련
- 자영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
  - 취업애로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자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애로계층을 방지해야 하는데 금융 서비스, 교육, 의료, 법률, 관광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 중심의 일자리 창출

김민정 연구위원(2072-6212, [kimmj@hri.co.kr](mailto:kimmj@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1.1	2.5	4.1	2.6	2.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1.2
일본	2.0	3.7	-1.7	-3.1	-0.2	1.7	4.8	3.9	1.1	1.0	1.4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5

주 1) 2013년,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1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4월 3일	4월 10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80	2.65	-0.15%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3.87	102.04	-1.83¥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3766	1.3856	0.0090\$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6,573	16,170	-403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5,072	14,300	-772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88	2.86	-0.02%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57.9	1,040.2	-17.7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1,993.7	2,008.6	14.9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4월 3일	4월 10일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100.29	103.32	3.03\$
	Dubai	107.99	100.38	107.88	101.29	104.56	3.27\$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303.79	310.89	7.10\$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5	2.1	2.3	2.4	3.5	3.0	3.8
	민간소비 (%)	2.9	1.2	2.6	1.9	1.9	2.1	2.0	2.7
	건설투자 (%)	-3.4	-3.2	-4.6	-3.9	6.4	7.0	6.7	2.5
	설비투자 (%)	4.7	4.3	-4.1	0.1	-8.3	6.2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187	109	400	508	313	486	799	4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41	441	370
	수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32	5,596	6,067
	(증가율, %)	19.0	0.5	-3.1	-1.3	0.5	3.8	2.1	8.4
	수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5	2,591	5,156	5,697
	(증가율, %)	23.3	2.3	-4.0	-0.9	-2.9	1.4	-0.8	10.5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2	1.3	2.4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2.9	3.1	3.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86	1,095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